

우리땅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636km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백령중학교
동아리(팀)명	독도지리지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독도가 우리땅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세종실록지리지'를 차용하여 '독도지리지'라고 동아리명을 지었다. 이는 동아리 학생들이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홍보하고 학습하면서 우리만의 기록을 '세종실록지리지'처럼 남기고자 한다. 또한, '백령독도'라는 동아리 브랜드 및 로고를 만들어 배지를 제작 중에 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 동아리 구성원 변경 전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김범석	3	동아리 대표, 동아리 회의 및 활동 총책임
2	최미소	3	회의 내용 기록 및 자료 편집
3	김우석	3	배지 제작 의견 수렴 및 총책임
4	정성희	3	다양한 자료 탐구 및 조사 총괄
5	최지호	3	울릉도, 독도 탐방 의견 수렴 및 총책임

※ 동아리 구성원 변경 후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김범석	3	동아리 대표
2	김우석	3	배지 제작 의견 수렴 및 총책임
3	최지호	3	울릉도, 독도 탐방 의견 수렴 및 총책임
4	어영현	3	회의 내용 기록 및 자료 편집
5	조재현	3	다양한 자료 탐구 및 조사 총괄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우리땅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636km**

- **주제 선정 이유 :** 본교가 위치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끝인 독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636km임을 반영하여 백령도부터 독도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알리고자 주제로 선정함.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백령도에 대한 애郷심을 함양하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몸소 느낀다는 2가지 기대효과를 가짐.

○ **활동 기간 :** 2018년 3월 동아리 결성 ~ 8월 16일 목요일

○ **추진 방법 :** 본교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 위치한 학교로, 북한과 매우 인접한 도서인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 수호 의지를 어려서부터 익힌 학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백령도 역시 수호함과 동시에 독도를 지키면서 독도 역시 우리땅임을 홍보하고자 한다. 동아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벤트와 자료 등을 제작하고,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직접 탐방하여 독도의 가치를 동아리 학생들과 본교 재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04.09	독도바로알기 대회	교내 다목적실	- 독도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탐구한 후 관련 문항을 분석하여 독도에 대한 지식 습득
04.09-13	'독도지리지'와 함께하는 독도교육주간 이벤트	교내 중앙현관	- '아는 만큼 지킨다! OX 퀴즈 스티커 붙이기' 참여 및 경품 추첨(강치 인형, 독도 뱃지 등) - '독도' 이행시 공모전 - 독도 관련 자료 제작 및 전시
05.07-11	교내 지리데이 이벤트	교내	- 독도와 관련된 주제로 지리데이 응모 활동
06.02-09	독도 관련 독서토론	교내 도서관	- '독도 1500년의 역사' 등 독도에 관한 도서를 읽고 자료 분석 및 토론

07.18-19	독도 탐방 사전답사발표회	교내 도서관	- 8월 중 울릉도, 독도 탐방을 위한 준비 상황 및 자료 점검
08.12-15	울릉도, 독도 탐방	울릉도, 독도	- 동아리 학생들과 직접 울릉도, 독 도를 탐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 을 체험함.
08.16	활동보고서 및 UCC 제작	교내 도서관	- 독도체험 발표대회 결과물 제출 준비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우리땅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636km'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우리땅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636km UCC	영상물	울릉도, 독도 탐방 활동 사진들을 영상으로 제작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 독도에 대한 다양한 자료 탐구와 조사를 통해 많은 지식을 함양하게 되었고, 더불어 북한과 접경 지역인 백령도에 대한 애향심도 증대되었다.
- 백령도에서부터 시작된 울릉도 독도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영토의 끝과 끝을 횡단하는 기나긴 여정에 크게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국토의식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중학생에게 매우 힘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땅에 대한 탐구 정신과 국토수호의지를 굳건히 하여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그리고 다시 백령도까지 오는 일정을 안전하게 소화하였다.

○ 향후 계획

- 백령도 일대에는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멸종위기종 동물을 보호하면서도 독도에 살았던 강치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품 제작 및 지역 사회 홍보 등을 하고자 한다. 이를 반영하여 '백령독도'라는 동아리 브랜드 및 로고를 만들어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배지를 주

문 제작 중에 있고, 이를 홍보차원에서 본교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배부하고자 한다.

- 현재 울릉도와 독도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교가 위치한 백령도는 국가지질공원 등재 준비 중이다. 따라서,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과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조사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시키고자 한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김범석	서해 최북단 도서에서 독도까지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에서 독도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설레고 떨렸는지 모른다. 독도를 향하는 배 안에서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께서 파도가 많이 친다고 배가 접안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배가 독도에 정착하고 독도경비대 형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고 싶다.
김우석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가게 되어 신기하였고, 백령도에서 출발하여 매우 피곤하였지만 그만큼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풍경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서 좋았다.
최지호	처음으로 독도동아리를 결성하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으나 매우 보람차고 뜻깊었다. 2학기에는 더욱 더 열심히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독도와 백령도 모두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어영현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가는 탐방이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학교생활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조재현	독도 탐방 출발 전에 동아리 활동으로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미리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땅 독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앞으로는 독도에 대해 더 많이 홍보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다.